

아동기 성학대 피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인영(이화여자대학교), 김진숙(한양사이버대학교 전임강사), 유서구(숭실대학교 전임강사)

I. 연구목적

아동기 학대경험은 아동의 삶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 성학대문제는 다른 학대유형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부부관계의 문제 및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성학대의 문제에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잘 시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 성학대 관련기관에 실제로 신고 접수된 성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학대를 경험한 피해 아동들이 어떤 후유증과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밝히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I. 연구방법

아동 성학대 관련기관에 신고된 피해 아동의 전수조사를 목표로 2006년 1월부터 8월 까지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22개소, 성폭력상담소 8개소, 학대아동치료기관 및 기타 아동청소년기관 8개소 등에 접수된 실제 사례에 대해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의 내용은 아동 성학대의 배경요인과 아동 성학대의 상황/상태,

성학대의 영향 및 결과, 아동과 가족의 일반적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배경요인에 아동요인, 보호자/부모요인, 가족요인, 지역사회 요인이 포함되었고, 성학대의 상황 및 상태에는 성학대의 유형, 발생시기, 지속여부 및 기간, 이전 피해여부, 발생 장소, 폭력동반여부, 신체적 손상 여부 및 내용, 보호자/부모의 초기반응, 이용한 공식적/비공식적 도움, 가해자의 신상 등이 포함되었다. 성학대의 영향 및 결과는 신체화 영역, 심리 영역, 행동 영역, 학교적응 영역, 외상후증상 영역, 성행동 영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아동과 가족의 일반적 사항으로 아동의 성별, 현재 연령, 피해당시 연령, 취학상태, 거주지역, 피해지역, 동거가족, 주보호자에 대한 사항, 소득수준 등이 조사되었다.

총 225 사례가 조사 완료되었고, 이중 남자 아동도 일부(7%, 16사례) 포함되었다. 성학대 경험이 피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별, 피해 당시의 나이, 현재 나이, 피해시기로 부터의 경과, 빈곤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기 위해 관심변인과 영향의 정도를 분산분석(t-test와 ANOVA)을 통해 파악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성학대 피해아동의 일반적 특성

피해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6명(7.1%), 여아가 208명(92.9%)로 나타났다. 피해 당시의 연령은 만 1세가 안된 아동부터 18세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평균 11세 였으며, 아동의 가구소득은 월평균 100만원 이하가 101명(48.1%)로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이 57명(27.1%), 200-300만원이 29명(12.9%), 300-400만원이 12명(5.3%), 400-500만원이 7명(3.3%), 500만원 이상이 4명(1.8%)로 나타나 신고된 아동들은 빈곤층의 아동들이 많았다.

성적학대 유형중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낸 유형은 ‘몸이나 성기를 갑자기 만짐’이 전체 아동 중 145명(64.4%)의 아동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의 ‘몸이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함’이 62명(27.6%)의 아동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적 성관계’도 66명(29.3%)의 아동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기에 이물질 삽입’도 7명(3.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학대는 일회성인 경우가 102명(45.7%)였으며, 2회 이상 지속된 경우가 121명(54.3%)로 절반을 넘어섰다. 가해자는 아는 사람인 경우가 167명(74.9%)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도 88명(3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요인과 성학대 피해의 부정적인 영향

분산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의 주요 결과로, 성학대 피해의 부정적인 영향(신체, 심리, 행동, 학교적응, 외상후증후, 성행동)에 있어서 성별, 피해당시의 나이, 피해시점으로부터의 경과기간 등에 차이가 존재함이 밝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피해아동의 나이가 표본의 평균(11세)보다 많고, 피해시점으로부터의 경과기간이 표본의 평균(약 1년)보다 더 오래 된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동 가구의 소득이나 빈곤관련 변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 아동의 성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성학대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여아인 경우에 남아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영향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t=-2.286$, $p<.05$)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영향($t=-4.328$, $p<.001$), 심리적인 영향($t=-2.677$, $p<.05$), 행동적인 영향($t=-2.402$, $p<.05$), 학교적응($t=-3.586$, $p<.05$)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났고, PTSD와 성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아동의 연령

피해아동의 평균 연령인 11세를 기준으로 성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을 영역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11세 이상인 경우에 11세 미만인 경우보다 부정적인 영향 평균점수가 더 높은 것($t=-4.680$, $p<.001$)으로 나타났고,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영향($t=-4.036$, $p<.001$), 심리적인 영향($t=-4.175$, $p<.001$), 행동적인 영향($t=-3.149$, $p<.01$), 학교적응($t=-4.455$, $p<.001$), PTSD($t=-3.524$, $p<.05$)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성학대'의 의미에 대해 잘 알게 되기 때문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앎으로써 생기는 차이로 여겨진다.

3) 피해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

피해시점으로부터 신고되기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 이상된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에 있어 성학대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과기간이 1년 이

상인 경우가 1년 미만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살펴 보면, 성학대 영향의 평균점수에 있어 1년 이상이 더 높은 것($t=-3.225, p<.01$)으로 나타났다고, 신체적인 영향($t=-3.521, p<.01$), 심리적인 영향($t=-3.054, p<.01$), 행동적인 영향($t=-2.451, p<.05$), 학교적응($t=-4.559, p<.001$), PTSD($t=-2.159, p<.05$)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피해시점으로부터 신고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가 지속적이었을 가능성과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아동이 적절한 개입과 치료없이 방치되며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가해자 유형과 성학대 피해의 부정적인 영향

1)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성학대 영향에 있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학대 영향을 영역별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을때, 심리적인 영향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2.012, p<.05$).

2) 가해자가 가족/친족인 경우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 성학대의 부정적인 영향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에는 신체적 영향, 심리적 영향, 행동적 영향, 학교적응, 성행동에 있어서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나, PTSD 영역에서는 평균점수가 더 낮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임상적으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이 아닌 경우의 피해 아동들이 PTSD 증상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치료프로그램의 구성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4. 성학대 유형과 성학대 피해의 부정적인 영향

성학대 유형과 성학대 영향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몸이나 성기를 갑자기 만짐’, ‘구강성교’, ‘강제적 성관계’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몸이나 성기를 갑자기 만진’ 경우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t=2.215, p<.05$), 세부항목에서는 행동적인 측면($t=2.415, p<.05$), 성행동 측면($t=2.519, p<.05$)에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구강성교’의 피해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t=-2.469, p<.05$), 신체적인 측면($t=-2.182, p<.05$), 심리적인 측면($t=-2.248, p<.05$)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 성관계’의 경우에는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정적인 영향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며($t=-6.160, p<.001$), 신체적 측면($t=-5.713, p<.001$), 심리적 측면($t=-4.808, p<.001$), 행동적 측면($t=-3.925, p<.001$), 학교적응($t=-4.329, p<.001$), PTSD($t=-4.283, p<.001$), 성행동 측면($t=-4.260, p<.001$)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정적인 영향의 평균점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던 성학대 유형들이 있다. ‘억지로 옷을 벗김’ 피해의 경우에는 PTSD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t=-2.154, p<.05$), ‘은밀한 부위를 보게 함’과 가해자의 ‘몸이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함’, ‘성기에 이물질 삽입’ 등의 피해는 신체적 측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2.127, p<.05, t=-2.166, p<.05, t=-2.761, p<.05$).

IV. 결 론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학교적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그 영향이 지속적인 사실이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고, 아동의 성별, 연령, 피해시점으로부터 신고시점까지의 경과기간, 가해자와의 면식여부, 성학대의 유형 등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도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급적 아동에게 성학대가 발생하고 나서 즉각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학대신고 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피해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동들에게 성학대 피해가 있을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한, 아동의 성별, 연령, 성학대의 유형 등 아동의 피해영향에 차이를 주는 변인들에 따라 강조점을 달리한 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해상황과 경과과정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알려주고 있다. 연구진은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성학대 피해의 영향이 다를 것으로 예상(가해자가

가족이나 친족일 경우에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가해자의 친족여부가 성폭력 피해의 영향에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